

정치리론학습 틀어쥐고 당원들 앞장서 특색시범가두 건설

연길시 북산가두당위는 당건설의 첫째가는 임무로 학습과 업무를 참답게 틀어쥐어 특색 시범가두를 건설하는 데서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북산가두당위는 매년 퇴봉학습마다 모택동 주석의 “퇴봉동지를 따라배우자!”는 호소를 받들고 퇴봉 따라 배우기 가동식을 하고 당원들이 앞장서 퇴봉정신을 선전하고 무료헌혈, 무료리발, 정거장 등 여러 곳에서의 무료봉사를 줄곧 견지해왔다.

지난해에는 한무길 등 8명 로선진들의 사적과 수만건의 무료봉사 사적을 전시한 ‘퇴봉의 집’도 빛을 보였다. ‘퇴봉의 집’에 올라있는 74세의 리할머니는 항상 불우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주고 있다. 그는 길림에서 온 백씨 성의 농민공과 하남성에서 온 왕씨 성의 농민공 모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데다 경작지도 적어서 여러 식구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정황을 료해하고 수년간 수천원에 달하는 옷과 기타 생활용품들을 지원했다.

북산가두는 지난 한해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120 여차 조직했다. 북산가두당위 진신우 서기와 인경식 주임 등 책임자들은 최근에 연길시가 왕흥 도시로 거듭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데 대비해 깨끗한 환경에서

순리롭게 유쾌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부문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환경미화, 관광객 안내, 무료 음료 제공,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퇴봉반 리설영씨는 관광객이 분실한 수천원짜리 핸드폰을 제때에 돌려주고 이름을 남기지 않아 연길 시민의 아

름다운 품성을 보여주었다. 북산가두당위는 당중앙의 목소리와 당규약에 대한 학습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당원들의 당성을 강화하고 실천을 중요시한 데서 뚜렷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한해 동안 가두는 20차 당대회 정신, 습근평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 등 정치학습을 52 차례 진행하고 16 차례의 주말무대로 7,000명 관객들을 기쁨과 환락으로 들끓게 하였으며 례미자원봉사 대형 행사를 50 차례 진행했다. 시민들의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보여주는 주말무대, 민족단결의 향기가 듬뿍한 이웃절 행사 등 활동들은 당의 정확한 령도와 당원들의 적극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활무대였다. 북산가두는 선후로 ‘전국자원봉사선진단위’, ‘전국 민족단결진보건설활동 시범사회구역’, ‘전 성 선진기증단조직’ 등 목직인 영예를 받아안았으며 왕수정은 ‘전국도덕모범’ 명단에 올랐다.

/ 리성복특약기자



▶ 무상헌혈을 하고 있는 북산가두 관련 부문 사업일군

▶ 무료리발 활동 장면



연변 고속도로 경찰, 휴게소에서 혼절한 남성 제때에 구조

“우리 휴게소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구도하고 있는데 와서 상항을 봐주세요.”

3월 10일 오전 8시경, 길림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 지휘중심은 도문고속도로 휴게소 경리로부터 한 남성이 휴게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는데 구도중 동반하고 있다는 신고전화를 받았다. 신고전화를 받은 연길분국 지휘중심은 즉시 순라대대 경찰들을 도문고속도로 휴게소에 파견했다.

8분후 경찰들이 휴게소에 도착했다. 혼미상태에 빠진 남성은 화장실 바닥에 누운 채 얼굴이 창백했다. 가족과 휴게소 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휴게소 직원이 베개를 가져다 쓰러진 남성의 머리에 받쳐주고 가족과 직원들이 그의 몸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고 있었다.



경찰이 가족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3일전 심근경색 수술을 받은 남성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일어나 혼춘시에서 출발하여 연길공항으로 가던 도중 어지럼증을 느꼈고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졌으며 휴게소 일군들이 이를 발견하고 안치했다고 했다.

“경찰차를 따르세요. 저희가 길을 열어 빠른 시간에 병원으로 모셔다드릴게요!” 경찰은 환자를 부축하여 차량 뒤좌석에 앉히고 가족들에게 뒤좌석에서 돌봐줄 것을 당부했다. 곧바로 시간 쟁탈전이 펼쳐졌다.

도중에 한개 대대의 순라경찰들이 연길분국 지휘중심에 상황을 보고했고 당직 책임자는 즉시 응급예비안을 가동해 제일 빠른 시간에 당시 병원과 연계하고 최적의 병원 호송 로선을 신속히 계획했다. 도문휴게소는 연변대학부속병원과 50키로메타나 떨어져있는 데다 연길시내가 차량 흐름량 최고봉 시간대에 처해있어 경찰은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경적을 울리면서 앞의 차량과 행인들에게 피하라고 알리고 속도

를 다그쳐 병원으로 호송했다.

20분후 남성은 안전하게 연변대학부속병원에 호송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경찰은 병원 일군들을 협조하여 남성을 응급실로 호송하고 의사에게 환자의 당시 증상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남성이 순조롭게 응급실에 실려간 후야 경찰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병원을 나와 근무지로 돌아갔다.

며칠후 길림공안청 고속도로공안국 연길분국은 남성 가족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다. 가족은 당시 남성은 수술후라 신체가 비교적 허약하고 그날 아침 또 제때로 휴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거리 승차로 피로가 몰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서 다행히 고속도로 경찰들의 신속한 대처와 구조 덕분에 제때에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받게 되었다면서 지금은 신체에 큰 지장이 없이 입원치료중에 있다고 밝혔다.

/ 리전기자



십사도구변경파출소 군중 방문하기 활동으로 법률지식 선전



최근, 백산변경관리시대 십사도구변경파출소에서는 관할구역의 여러 농촌마을에 침입하여 군중 방문하기 활동을 벌였다.

방문 과정에 파출소 경찰들은 진소제지와 여러 농촌마을의 주민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대중들의 가정생활 상황, 봄갈이 준비 상황에 대해 료해하고 농촌마을의 사회치안 관리, 군중을 위한 봉사, 이웃의 모순과 분쟁화해 등 사회문제에 대한 군중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파출소는 광범한 인민대중들에게 불법 율령, 절도, 전신사기, 도박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신고할 것을 귀띔했다.

/ 룽관 (鹿寬), 최창남기자

▶ 파출소 경찰이 주민호를 찾아가 전신사기 범죄행위 방지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뜰뜰 뭉치니 제 2 고향서도 외롭지 않네”

— 대련시 조선족군중 ‘3.8절’ 경축모임 스케치



여기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3월 7일, 화창한 봄날이라 물오른 길가의 수양버들이 하느적거리며 손님을 반기고 아침 일찍부터 극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 노래소리가 문화관 상공에 메아리친다. 삼삼오오 때를 지은 여성들이 산뜻한 한복차림으로 극장에 들어가고 남성들은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주최하고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협조한 대련시 조선족군중 3.8 국제부녀절 경축대회가 이제 곧 막을 올리게 된다.

다년래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은 해마다 조선족 민속절, 활쏘기, 게이 트볼경기, 장기대회, 골프경기 등 문화체육활동을 조직하여 제 2 고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6만여명 조선족들의 만남의 장, 소통과 단합의 장을 마련해왔다.

오전 9시,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 부관장 동효려와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상무부회장 박정애가 축사를 했다. 그들은 조선족 여성들이 앞으로도 민족문화 전승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에 눈길을 돌려 민족단결, 법률준수, 공중위생 등 면에서 새로운 기여를 하기를 바랐다.

뒤이어 대련시조선족로인협회 13개 분회와 아리랑예술단, 아박예술단, 장백정예술단 등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아박무용단의 부채춤, 행복예술단의 동이춤, 쾌락분회의 <그네 뛰는 처녀> 등 무용들은 유연하고 경쾌하고 절주감이 강한 우리 민족의 무용 특성을 잘 보여주어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강광희, 리영희, 고종석, 김향란 등 4명 로인들의 시랑

송 <반쪽 하늘을 떠이고>는 항일전쟁, 해방전쟁 및 새시대의 여성들의 업적을 격조높이 찬양해 관중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중산구분회의 표현창 <북년 살림 이루어네>, 금주분회의 가무 <반갑습니다>, 감정자분회의 무용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등 종목들은 관중들을 경쾌한 반주와 멋진 출연에 감동되어 앉은자리에서 어깨춤을 추게 만들었다.

극장을 돌다 보니 뒤줄 좌석에 앉은 20여명 관중들이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김립성과 흑룡강성에서 자식들을 따라 대련에 온 지 얼마 안되는 관중들이었다.

“생활습관이 다르고 언어소통이 전혀 안되어 집에 갇혀있다가 오늘 이렇게 와서 구경을 하니 참 좋아요!” 흑룡강성 수화현에서 왔다는 최씨의 말이다.

김립성 장백현에서 왔다는 김씨는 앞으로 민족절 행사가 있으면 꼭 달려달라며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준다.

그렇다. 자식따라 제 2 고향 대련에 온 이들, 만남, 소통, 단합의 장 마련을 바라는 것이 어찌 최씨와 김씨 두 사람뿐이겠는가? 민족문화 전승에 앞장서고 있는 대련시조선족문화예술관이 있기에, 6만여명 조선족 군중들의 버팀목인 대련시 조선족 기업가협회, 로인협회, 학교가 있기에 그 소망은 기필코 실현될 것이다.

다채로운 문예공연은 윤칭의 독창 <나는 중국을 사랑하노라>와 아리랑예술단과 행복예술단의 대합창 <자랑찬 우리 겨레>로 고조를 이루었다. / 리삼민특약기자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3.8’절 경축 및 새해 개학식을



최근,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로인협회 ‘3.8’국제부녀절 경축모임 및 2024년도 개학식이 현조선족경로원 로인활동실에서 성대히 펼쳐졌다.

현인대 상무위원회 전임 부주임 전태선과 현당위 통진부, 현문화라지오 텔레비전방송신문출판관광국, 현로년체육협회, 현로년대학, 현 조선족 중소학교의 해당 책임자들과 부분적 조선족 민영기업가들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우선 120여명의 회원들이 장백현조선족로인협회 회가를 우렁차게 불러 개학식을 알리고 현조선족로인협회총회 김영희 회장이 협회 지도부를 대표해 ‘3.8’부녀절 경축모임에 축사를 올렸다. 그는 회의에 참가한 모든 여성 회원들에게 삼가 명절의 축복을 전하고 나서 총회와 여러 분회에서 진행하는 제반 문화오락활동에 적극 참가할 것을 광범한 회원들에게 요구했다.

회의는 또 지난 1년간 협회 사업을 적극 지지하고 각종 문화오락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단결이 좋고 가정이 화목하며 여성 공세우기 활동 가운데서 성적이 뚜렷한 김정실 등 8명의 ‘3.8’붉은기수, 현분회의 ‘3.8’붉은기수 1명을 표창했다.

이어 총회 회장으로부터 부회장, 새로 부임된 문예회장, 문예위원, 그리고 여러 분회의 분회장 등 17명의 지도부 성원들이 선후로 무대에 올라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소합창 <새해의 꽃노을>을 멋지게 불러 이날 문예공연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문예공연은 총회와 여러 분회에서 자체로 정성껏 준비한 독창, 소합창, 무용, 민악소합주, 기악합주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종목으로 장내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 최창남기자

